3/4 분기 경제성장률 -3.5% 기록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내각부는 지난 7~9월의 실질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이 전기 대비 -0.9%, 연율 -3.5%에 그쳤다고 발표함.

- 전기와 비교해 수출이 5.0%, 설비투자는 3.2%, 민간소비는 0.5% 각각 감소하였는데, 이는 일본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됨.
  - 3/4분기 일본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 2/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이며,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전문가 예상치인 1.7% 감소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음.
  - 또한, 민간소비는 2/4분기 0.1% 증가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음.
- 한편,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일 경기 기조가 2011년 5월 이후 16개월 만에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,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공공투자가 4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악화되었음.

■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센카쿠 열도 대립으로 수출 환경이 불투명해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임.

-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본 경제성장률이 4/4분기에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일본 경제가 경기후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.
  - 한편, 국제통화기금(IMF)은 지난달 초 전망에서 일본 경제가 올해 2.2%, 내년에 1.2%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,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.
- 악화된 경제지표들은 일본은행(BOJ)과 노다 요시히코 내각에게는 추가 부양책 실시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.

(일본 내각부 外, 11/12)